농림축산식품부	보도자료	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

2019년 9월 4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산업정책과 과 장 박상호(044-201-2411), 사무관 정정희(2423) / 제공일: 9월 3일(총 5매)

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2020년 예산안 2,477억원 편성

- '스마트팜' 생태계 조성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지원 확대 -

《 주 요 내 용 》

◈ **스마트농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2020년 예산안 2,477억원 편성**

① '스마트팜' 거점('스마트팜' 혁신밸리) 조성과 산업 생태계를 위한 **'빅데이터'**, '스마트팜' 기자재 **국가표준 확산**

② 노지·축산 등 **농업 전분야로의 스마트 확산**

③ 기존 농업인의 **노후화된 시설**을 **스마트화**하여 **경쟁력 향상**

❑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'농식품부')는 **스마트농업을 본격 추진**하기 위해 농식품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으로 **2,477억원을 편성**(주요사업 기준)하였다.

❑ 농식품부는 **2014년부터 농가 단위로 스마트팜을 보급***하면서 작년부터 '스마트팜' 청년 인력 양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**거점('스마트팜' 혁신밸리) 조성을 동시에 추진**하고 있다.

* '스마트팜' 보급실적(누계) : (온실) 2014 ; 405ha → 2018 ; 4,900 / (축사) 2014 ; 23호→ 2018 ; 1,425

○ 2020년도 편성된 예산안은 **'스마트팜' 혁신밸리를 차질 없이 추진**하면서 시설원예에 집중된 '스마트팜'을 **농업 전분야로 확대**하기 위해 올해에 비해 **859억원이 확대**(2019년 : 1,618억원 → 2020년 : 2,477억원)되었다.

○ 특히, "스마트농업 정보기반(플랫폼) 구축(47)", "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(ICT)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(45)", "스마트팜 빅데이터 센터(39)", "첨단무인자동화 농업생산시범단지 조성(6)" 등 **신규사업 예산안을 편성**하여 **스마트농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**이다.

1 '스마트팜' 혁신밸리 추진과 '스마트팜' 산업생태계 기반 마련

○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 **'스마트팜 확산방안'**을 통해 2022년까지 **전국에 혁신밸리 4개소를 조성**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1·2차 공모를 거쳐 경북(상주), 전북(김제), 경남(밀양), 전남(고흥)을 선정하였다.

○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**정보통신기술(ICT) 기반 농산업 클러스터**이며, 세 가지 핵심시설*을 통해 **청년 전문인력 양성**(~2022, 500명)과 현장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한 **'스마트팜' 기자재, 서비스**의 **개발 및 실증**을 추진할 계획이다.

* ①'스마트팜' 청년창업보육센터, ②임대형 '스마트팜', ③'스마트팜' 실증단지

○ 2020년에는 혁신밸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**핵심시설의 연차별 소요예산**(1년차 40%, 2년차 33.3%)을 반영하였고(2019년 : 478억원 → 2020년 : 843억원),

○ 혁신밸리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·제공할 수 있도록 **빅데이터 센터를 1차 조성지역(경북, 전북)에 조성**(신규, 39억원)할 계획이며, '스마트팜' 분야뿐 아니라 생산,

유통 등 농식품 전분야의 데이터를 수집·저장·분석하기 위해 **중앙 기반(플랫폼)을 구축**할 계획이다(신규, 47억원).

○ 또한, 영세한 '스마트팜' 기자재 업체들이 국가표준*을 적용할 수 있도록 **전문상담(컨설팅) 및 시제품 검정비용 등을 지원**하는 **"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(ICT)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"** 사업(신규, 45억원)을 2020년 예산안에 편성하였다.

* '스마트팜' 정보통신기술(ICT) 기자재 상호간 호환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유지관리 편의 등을 위해 시설 원예분야 22종에 대해 국가표준 제정(2018)

2 시설원예 중심에서 농업 전반으로 스마트농업 확산

○ 그간 노동집약적이고 경험 위주의 노지재배 방식을 **주산지 중심의 데이터기반 영농으로 전환**하기 위해 **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사업***을 **확대**(2019: 30→ 2020: 88억원)하고,

* 노지작물이 집단·단지화된 지역(2개소)에 현장실증이 가능한 장비를 집중 지원하여 수급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노지재배의 스마트화 추진동력 마련

○ **스마트 축산단지***를 올해 한우(경북 울진), 돼지(강원 강릉), 낙농(충남 당진) 등 3개소 선정한데 이어 2020년도에는 **5개소를 추가 선정**하여 악취 민원빈발 지역이나 시설이 노후화된 축산밀집 지역을 친환경적인 축산단지로 개편할 계획이다(2019: 79→ 2020: 225억원).

* 개소당 10ha 내외로 시설 노후화가 심해 축사 재건축이 필요하고 소규모 농장이 집적되어 개별적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는 농가에게 새로운 사육기반 조성(2년차)

○ 또한, 자율주행 무인 트랙터, 농업용로봇 등 첨단 농기계를 이용한 **무인자동화 농업생산단지**를 **시범적으로 조성**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(신규, 6억원).

3 기존 노후화 단지·시설 스마트화를 통한 농가 경쟁력 향상

○ 기존 농업인을 위한 '스마트팜' 보급·확산 사업 또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. **노후화된 원예 시설단지를 스마트화**하여 기존 농업인의 **생산기반을 개선**할 계획이며(2020, 28억원),

○ 축산농가에는 온·습도, 악취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환경제어기, 가축의 운동량과 체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생체정보 수집장치, 자동급이기, 로봇착유기, CCTV 등 **첨단 정보통신기술(ICT) 장비를 지원**하고, 스마트 축사 도입 초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**상담(컨설팅) 지원**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(2019: 713→ 2020: 1,029억원).

❑ 한편, 윤동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"스마트팜은 세계적인 추세이며, 발 빠르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선진국과의 '스마트팜' 기술격차는 점차 벌어지게 될 것"이라며,

○ 향후,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여 **농가의 '스마트팜' 경쟁력 향상**과 함께 **스마트팜 산업 생태계를 조성**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,

○ 편성된 농식품부 '스마트팜' 관련 2020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(~12.2) 최종 확정될 때까지 본 편성방향의 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.

참 고 스마트농업 관련 주요사업 농식품부 '20년 예산안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	'19년(A)	'20(안)	전년 대비 (B-A)	%
혁신 밸리 관련	핵심 시설	○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	12,190	17,388	5,198	42.6
		○ 임대형 스마트팜	16,400	26,104	9,704	59.2
		○ 스마트팜 실증단지	19,227	40,809	21,582	112.2
	기타	○ 스마트팜 빅데이터 센터	-	3,898	3,898	순증
		○ 스마트농업 정보플랫폼 구축	-	4,665	4,665	순증
	소계		47,817	92,864	45,047	94.2
보급 사업	기반	○ 시설원예단지 기반조성	7,000	2,800	△4,200	△60.0
	온실	○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	24,769	12,620	△12,149	△49.0
	축산	○ 축사시설현대화(ICT 시설지원)	71,294	102,906	31,612	44.3
	소계		103,063	118,326	15,263	14.8
	표준 확산	○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	-	4,500	4,500	순증
	스마트 농업	○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	3,000	8,840	5,840	194.7
		○ 스마트축산 ICT 단지조성	7,875	22,500	14,625	185.7
		○ 첨단무인자동화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	-	630	630	순증
	소계		10,875	36,470	25,595	235.4
합계			161,755	247,660	85,905	53.1